불자 세상보기

100만 촛불이 만든 화엄의 꽃



송마나
자유기고가

누가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말하였는가? 지난 2주간 광화문 광장을 환하게 밝힌 100만 촛불은 화엄의 꽃이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메운 촛불은 장엄한 연화장의 세계였다.

이처럼 전국 방방곡곡에서 휘황하게 타올랐던 불빛은 국민 개개인의 촛불이자, 대한민국 전체의 불꽃이었다. 작은 촛불 100만 개가 모여 광대무변한 촛불의 만다라가 되어 어둠을 밝혔다.

어느 누구도 이 거룩한 촛불 앞에서는 삿된 생각이나 망령된 마음을 일으킬 수 없으리라. 그런데 어느 철부지가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참담한 소리를 한다.

촛불은 홀로 타오른다. 심지를 자르라는 주변의 잡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방향을 바꾸려는 의도를 물리치고 스스로 제 몸을 태워 불을 밝힌다. 자신의 그림자가 줄어들수록 몸 안의 골은 깊어지지만 그곳에 아픔과 침묵의 눈물을 흘리며 빛을 내뿜는다. 촛불은 가장 내면화된 불이다.

촛불은 항상 수직으로 타오른다. 불꽃은 세상을 검게 물들인 뇌물, 청탁, 협잡 등의 온갖 죄악을 태우고 수직으로 솟아오른다. 곧게 타오르는 불꽃은 악취를 풍기며 네 발로 기어 다니는 짐승 인간을 바로 세워 직립인간이 되도록 활활 타오른다. 설령 촛불의 외모가 가냘프다고 심지에 심지를 맞대어도 불꽃은 제가 잘났다고 도드라지지 않고 두 불꽃은 하나로 더욱 커져서 다시 위를 향하여 비상한다.

촛불은 이렇게 소박하고 순수하다. 이런 촛불이 탁탁 소리를 내며 투덜거린다. 아니 울음 운다.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온 울분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울음 운다. 그 울음소리를 속으로 꾹꾹 삼키며 눈물을 흘린다.

급기야 촛불의 행렬이 노도처럼 넘실거렸다. 그 파도의 심연에는 답답하고, 원통하고, 서러운 마음이 가득하였으리라. 그렇지만 어떤 폭력이나 물리적인 충돌도 없었다. 지고로 승화된 아름다운 모습이다. 연약한 불꽃은 완고함을 깨뜨리고, 부드러운 열기는 차가운 마음을 녹인다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촛불은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불꽃은 불순물과 온갖 죄악을 태워서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이룰 것이다. 촛불은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오탁된 사회를 씻어내고 우리의 눈물까지 닦아줄 것이다. 촛불은 내일을 향한 희망이며, 인간 본연의 심전(心田)으로의 복귀이다.

촛불 위에서 하얗게 피어오르는 빛, 이 빛은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배달민족의 순결한 빛이며 동방의 빛이다. 우리는 이 고요한 빛을 보존하고, 앞으로 이어 나가도록 촛불을 밝혀야 하리라. 너와 내가 흘리는 눈물은 강을 이루고 화엄의 바다를 이뤘다. 하나 둘 모여든 작은 촛불은 횃불이 되고 화톳불이 되고 원자로가 되었다. 이렇게 손과 손에 촛불을 든 100만 시민들의 불꽃, 바로 화엄의 꽃이다.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촛불을 높이 들었다. 여기에는 내 안에 나라가 있고 나라 안에 내가 있으며 백성이 곧 나라요 나라가 곧 백성이라는, '일중일체다중일 일즉일체다즉일(一中一切多中一 一卽一切多卽一)'의 화엄의 법계연기(法界緣起)의 마음이 담겨있다.

이렇게 광명한 화엄의 불꽃이 바람이 분다고 꺼지겠는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끝없이 펼쳐진 화엄의 바다가 바람이 분다고 마르겠는가?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백만 아니 5천만 국민이 한 마음으로 밝힌 화엄의 촛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발언대

불교계 탈핵운동 본격 시작

지난 11월 21일 불교계선 탈핵 관련 세미나가 2차례 연이어 열렸다. '생명 · 탈핵 실크로드 준비단' 공식 출범식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주최 '지진은 말한다, 잘가라 핵발전소!' 토론회다. 전문가들은 핵발전소 문제는 지구촌이 합심해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라는 데 공의를 모았다. 〈편집자주〉

핵발전소 문제는 인류의 '공동과제'



장회익
서울대 명예교수(물리학)

핵에너지는 인류의 긴 진화의 과정을 통해 한 번도 마주쳐본 일이 없는 전혀 새로운 부류의 존재이기에 인류의 직감에 의해 그 위험성이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잘 관리하기만하면 이 위력이 유용한 에너지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신화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값싸고 풍부하면서도 매우 깨끗한 에너지란 이미지가 바로 그것이다. 핵에너지가 지닌 근원적 위험성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 인류의 본능적 직감 안에 각인될 기회가 없었기에, 인간은 오로지 이성적 계산 만에 의존해 그 위험성을 확인하게 됐다. 이러한 계산이 긍정적 결과를 주기만 하면 쉽게 맹신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실제로 후쿠시마 참사를 비롯한 몇몇 대형 참사들이 이러한 이성적 접근 자세의 부적절성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집단과 그리고 이를 신뢰하는 정책 입안자들은 여전히 지엽적인 보완 조처만으로 넘어가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우린 지금 결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물건'인 핵에너지를 폐기함으로써 좀 더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계기로 에너지 중독서 벗어나 저에너지 고효율의 문명을 새로 마련하는 일에 시급히 착수해야한다.

이것은 비단 한반도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상에 함께 살고 있는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임을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작은 땅 위에 가장 높은 핵시설 밀도를 지님으로써 일차적 위험을 느끼는 나라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직 한 기의 핵시설도 가지지 않아 이러한 문제의식조차 가지지 않은 나라들의 국민들에게도 일단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공동 운명체로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상기시켜 이들과 핵에너지 폐기 운동을 함께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본다.

항상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다



김익중
동국대 교수

지진에 대한 평가는 다음 2가지 질문으로 수렴된다. 첫째, 우리나라 핵전 부지에서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올 수 있는지, 둘째, 6.5로 내진 설계된 핵전들이 수 십 년이 지난 현재도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다.

지진계는 원자로 건물 내부와 외부에 각각 위치해있는데, 경주 지진 당시 월성1호기의 원자로 건물 외부에 위치한 자유장 지진계는 고장나있었다. 그러나 지진 다음날인 2016년 9월 13일 필자가 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방문했을 때 한수원은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 지진 후 4시간이 지나서야 월성 1,2,3,4호기 원전을 수동으로 정지시킨 이유에 대한 야당의원의 질문에 한수원 담당자들은 지진 스펙트럼 값을 해석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그러나 약 2주 후 국정감사서 지진계 고장사실이 드러나자 이 문제를 대처하느라 시간이 걸렸던 사실을 인정했다.

항상 이런 식이다. 일단 숨긴다. 그러다가 들키면 들킨 만큼만 인정한다. 아마 월성1호기 자유장 지진계측계의 고장 사실은 규제기관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진 이후 국회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규제기관 관련자들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일단 숨기는 습관은 원자력계 전체가 공유하는 듯하다.

9월 12일 경주지진 이후 440회가 넘는 여진이 3주째 지속되고 있다. 진도 6.5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된 원전이라지만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수 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성능을 유지하는지는 조사되지 않았다. 그리고 규모 5.8의 지진이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서 발생했다. 또한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팩트다. 나는 이 정도 팩트라면 우리 국민이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글은 녹색평론 151호에 실린 글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社說

전통문화 수호에 불자 공감대 높여야

최근 봉은사 인근 105층 규모의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함께 대규모 광역 복합환승센터가 조성된다고 한다. 버스환승센터와 통합철도역사, 주차장, 상업문화시설 등 축구장 60개를 합친 규모다.

불교계 안팎에서는 인근 전통사찰 봉은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봉은사 인근 지대가 연약지반이란 우려에서다. 이미 2015년 봉은사 옆 삼성중앙역 시공 당시 싱크홀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여기에 기존 현대차 GBC로 인한 빛반사와 일조량 감소로 문화재 보존 및 사찰환경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우려 속에 대형 공사가 속속 진행되고 있지만 불교계 여론은 미지근하기만 하다.

봉은사역사문화환경보존대책위 측이 주민소환운동을 펼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섯부른 강경 대응이 불교계 망신으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여론이 뜨겁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불교계의 어거지 행동으로 여겨질까 해서다.

서울시장 주민소환운동 서명에는 100만명 이상이 동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탈된 한전부지, 현재 GBC부지에 대한 환수 정당성과 봉은사를 비롯한 전통문화 공간의 보존에 대한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기회가 많아야 한다.

불교계는 천성산 터널 공사 당시 지율스님의 단식과 함께 정토회 등 불교단체가 지하철 역사에서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친 것을 기억한다. 봉은사 일대의 전통 불교 문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자 대중의 공감대를 높이고, 모든 대중이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주민소환운동을 잠시 접고 사전 예비조사와 여론 형성을 위한 밑작업을 활발히 펴야 한다.

파라미타 20돌에 부쳐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이하 파라미타)가 20살 생일을 맞았다. 1996년 조계종이 청소년 포교를 위해 대중 공의를 모아 출범한 파라미타는 불교를 대표하는 청소년 포교 단체다.

파라미타는 20년 동안 '맑은 세상을 청소년에게'라는 표어 아래 1문화재 1지킴이 · 문화재 모니터 · 우리역사 바로알기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 건강지킴이 · 연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11월 20일 열린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는 파라미타 발전 계획인 '파라미타 점핑(Paramita Jumping)'도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파라미타는 △학교분회 · 사찰연계를 통한 청소년포교 동반성장 △현재 23곳인 초교분회를 2026년까지 100곳으로 확대 △전국 교원대학에 파라미타 대학생 그룹 마련 등을 향후 비젼으로 제시했다.

현재 한국불교에게 어린이 · 청소년 포교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한국갤럽의 통계에 따르면 세대 전승에 있어서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불리하다. 10~30대를 중심으로 한 미래 세대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실제 연령별로 보면 불교는 10~20대가 전체 불교인구의 10%, 30대는 11%에 불과하다. 반면 50~60대 인구는 각각 30%를 상회하고 있다. '가족 중심의 종교'로 고착화되며 개종률이 낮아지고 있는 현재 한국의 종교 상황을 감안하면 어린이 · 청소년 포교는 한국불교가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파라미타가 가지는 책임은 막중하다.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통해 바른 가치관을 함양시키고, 나아가 뛰어난 불교 인재로 양성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20돌을 맞은 파라미타가 한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단체가 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